



『회원과의 대화』

시간을 마치고



곽길섭 / 회원 / 정책학박사



저는 현직때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영원한 북한맨’을 모토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유인’ 이라는게 하나 더 추가되었죠. 그런 제가 지난 가을(10.11)에 조금 색다른 여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쌓였습니다. 그건 바로 양지회에서 마련해 준 『윤석열 대 김정은’저자, 회원과의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산전수전에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선배·동료님들 앞에서 퇴직 후 제 삶과 4권의 책(‘김정은 대해부’, ‘김정은과 바이든의 핵시계’, ‘북핵과 분단을 넘어’, ‘윤석열 대 김정은’)을 출간했던 과정, 북한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수 있었던 것은 그때는 물론이고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이 격동됩니다.



딱딱하고 다소 어려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100여분 동안 경청을 넘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지회에서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유명인사 강연이나 학술세미나도 좋지만, 한울타리에서 20~30년 동고동락하다 퇴직하여 사회 각분야에서 제 2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료들과의 대화 시간은 그 나름대로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소중한 자리에서 몇가지 제 생각, 화두(話頭)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퇴직후의 삶은 무조건 행복해야 한다. 의미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더 더욱 좋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후배와 주무관청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작은 것이라도 물리적·정신적으로 현직

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처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원한 국가정보맨’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김정은은 젊은 리더이지만 ‘콤플렉스와 야망을 지닌 승부사’이고, 아버지 김정일과는 180도 다른 종(種)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처방식도 과거 패턴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종수령 통치행태, 지구촌 급격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한을 비롯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는데, 우리가 과거 (stereotype)에 머물러 있거나 이상(wishful thinking)에만 매달리면 김정은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핵문제는 긴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전술을 배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핵은 김정은의 대전략, 즉 ‘김씨일가 영구집권기반 구축-사회주의강국 건설-쑤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hard ware)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이 핵정책 법제화(9.8)를 통해 “령토완정”(嶺土完整)을 전문과 제1조에 명문화하고 핵 불포기-선제공격노선을 천명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같은 북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북핵 무력화·무용화 전략’ 밖에 없다. 《3기동, 4D론》(세부내용은 이 글의 뒷부분 참고)에 입각한 전략전술적 대북 정책 추진이 해답이라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당면한 최고현안(hot-issue), 북핵문제에 대한 제 소견입니다.

김정은시대 핵정책

김정은은 공식집권(2012.4) 이후 핵 개발-실전배치 활동을 공세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을 주요계기로 구별해 보면 3기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 1기(핵개발 올인기)는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하는 ICBM급 화성-15호를 시험발사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시기까지이다. 제2기(핵협상과 핵전력 고도화 병행기)는 2018년 ‘한반도



도 평화의 봄'으로 대표되는 비핵화 협상과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이후 정면돌파전과 다양한 도발로 핵능력을 질·양적으로 고도화했던 기간이다. 지난 9월 8일 핵정책 법제화로 김정은 핵정책은 제3기(핵선제공격 위협기)가 시작되었다.

핵정책 법제화 의미와 문제점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과 법령 채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전문, 11개조항)을 통해 ▲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 북한지도부가 공격받거나, 북한체제가 위협을 받을 경우 언제든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 앞으로도 핵능력을 질·양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노선을 천명하였다.

동 법령은 일종의 '선제 핵공격 독트린'으로서 1)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2) 향후 협상시 상호 대등한 군축회담 기반 확보 3) 유사시 핵전쟁 도발 위협 등 3가지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체제안전판을 넘어 군축회담과 적화통일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저의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핵 사용 조건> 5가지이다. 핵의 제1목표는 전쟁억지와 방위에 있지만,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자위적 차원에서 공격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너무나 포괄적이고 임의적이다. 특히 6조 5항은 '기타'라는 용어를 아예 삽입하여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이 상황을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수 있게끔 하였다.

한편 법령 <서문>에 포함된 "령토완정" 4글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최종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보다 적나라(plainly)하게 표현한 문구이기 때문이다. 자의적 핵선제공격 원칙 5가지의 폭발성에 가려져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북한의 예상행보

향후 북한은 '강대강' 기조하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위성(ICBM)발사, 핵실험 등 전략도발의 적절한 타이밍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핵정책 법제화 이후 미사일 집중 도발도 핵전력 운용체계 고도화와 강경 입장을 내외에 각인시키려는 다목적 행보라고 할수 있다. 앞으로도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구조적 변수가 한반도에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도발과 북중러 3각연대 강화를 통한 '강대강'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핵능력 고도화와 대북제제·방역 위기 타개를 위한 이른바 '그럭저럭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은 북한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는

2024년을 기점으로 ‘Again 트럼프와 함께 춤을’ 기조하에 군축회담과 빅딜(big deal)을 위한 여건 조성을 조심스럽게 모색해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북한은 가치와 원칙·절차를 중요시하는 바이든-윤석열 정부와는 타협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하에 케미(chemistry)가 맞는 트럼프의 재등장을 기다리면서 이른바 대한민국의 3가지 ‘약한 고리’, ①대선 이후 증폭되고 있는 국론분열상 ②북일 대화 재개를 통한 한미일 3각공조 균열 ③ 750만 해외동포 친북화에 주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 응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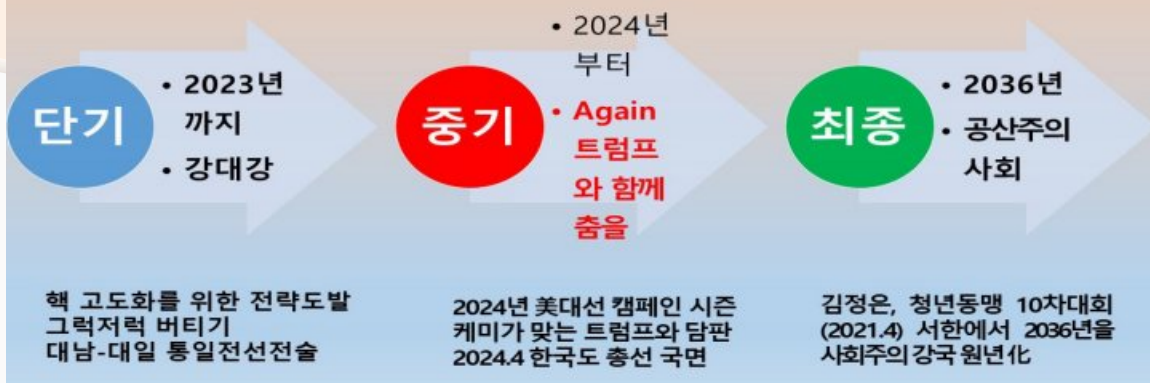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와 전략 도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면서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 남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金正은의 대전략에 대한 정밀 재검토가 중요하다 ▲ 다음으로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등과 같은 구조적 변수와 함께 ▲ 2024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북한의 경제 및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제재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전략전술적 외교, 자주국방력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나토식 핵공유협정 체결,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등을 비롯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0부터 100까지의 스펙트럼) 위에 올려 놓고 검토, 시행해 나가야 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제 1기등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북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핵

향후 예상 시나리오



실행 방안

3기둥(pillar)의 유기적-입체적 구현



※ 윤석열정부의 대화(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의 3D개념은 1,2 기둥에 주안
→ 북한체제 민주화(Democratization) 제3기둥이 중요
* 4D or 광의의 3D(Dissuasion+Democratization)

김정은에게 “핵을 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북핵을 넘어 북한문제로!!

무력화(무용화) 전략전술이 보다 중요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하에 국방력 강화(제 2기둥)와 북한체제 정상화(제 3기둥)를 장기·입체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 세부전술로 3D, 즉 대화(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 민주화(Democratization)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난 시기처럼 ‘답쫓던개 지붕쳐다 보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3D를 넘어 ‘4D 또는 광의(廣義)의 3D’로 개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수비력(자주국방+핵우산)과 공격력(대북제재+북

한민주화)이 함께 할때만이 더 힘을 받을 것이며, 통일이한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탄탄해 진다.

목표와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유비무환-국론 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